

담양군, ICT 활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축산 관계자 대상 한우리 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담양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정보교육장에서 ICT 기술 활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리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한우리 시스템 활용교육에는 젓소 사육농가, 축산관련 담당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손지용연구사의 지도로 한우리 시스템을 이용한 HACCP, 개체관리, 번식관리, 도체등급 관리 등을 진행했다.

“한우리 시스템”은 가족사육부터 출하 뒤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력정보, 축산물등급판정정보, 혈통정보 등을 간편하게 볼 수 있고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기록관리를 농가가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장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한우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가족 사육과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를 얻고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젓소 생산성 향상 등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축산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담양=박종영 기자

함평군, 정기분 재산세 16억 원 초과

함평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4,776건 16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류세로,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은 주택 및 건축물분이며, 오는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해당연도의 분세기준으로 20만 원(작년까지 10만 원 초과)을 초과할 때에만 9월 2기분이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세액은 지난해(14억 5,000만 원) 대비 13.68% 증액된 16억 5,000만 원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 뱅킹 서비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오는 23일과 31일에 각각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고 150원(전자고지서와 함께 신청 시 3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7월 31일) 재산세 미납시에는 가산세 3%가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성군 농기계 임대 서비스, 2년 연속 '최우수' 쾌거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전국 시·군 대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사업소로 평가받으며 상사업비 3억 원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에서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전국 141개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 임대

사업소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농기계 임대실적 및 수요자 농업인의 만족도 ▲전담인력 현황 ▲발농사용 임대농기계 보유율 ▲정책참여도와 수행능력 등 6개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조사되었다.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총 3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해 접근성과 농기계 기종, 수량을 대폭 늘리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연간 1만여 건에 이르는 높은 임대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농기계 운반(택배) 서비스와 SNS 문자 서비스 등 수요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늘려온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은 요인으로 분석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군 농기

계 임대사업은 인건비·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우리 군 농산업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농기계 종합교육장을 신축해 농기계 면허취득 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성군은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상사업비 3억 원을 노후 임대농기계의 교체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영광군, 아열대 작물 보급·확산 박차

'망고야' 농장 방문 농가 대표 격려



영광군은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물 보급·확산을 위해 지난 15일 '망고야' 농장을 방문하고 농가 대표를 격려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망고 품종의 95% 정도가 '아윈(Irwin)'인데 '망고야' 농장에서는 품종갱신을 통해 '아윈(Irwin)'의 단점을 보완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한편 영광군은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영광군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을 보급·확산시켜서

신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아열대 과일 수입량은 전체 수입 과일 82만 톤 중 63%인 52만 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30% 증가했다.

앞으로 세계화와 소득 증대, 젊은 층의 기호도 변화,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아열대 작물 소비시장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영광군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이 기후 변화 대응 신 소득 작목으로 자리 할 수 있도록 시범농가 육성과 아열대 작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열대 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기술지도에도 힘쓸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나주시, 도시농업 전문가 23명 배출

제1기 수료식 가져

나주시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제1기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수료식을 갖고, 도시농업 현장에서 활약할 민간 전문가 23명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도시농업 활동가 양성을 통한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구현,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 25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11회(8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중 출석률 80%이상의 교육생 23명이 수료했다.

교육생들은 도시농업의 이해와 도시농업 작물 재배 기술, 유행별 텃밭 관리, 학교텃밭 개발 및 기획안 작성, 친환경 퇴비 만들기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다양한 실습을 통해 도시농업 전문가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학교 텃밭 감사 및

관리 인력, 도시농업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도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취미로 각광받는 도시농업 보급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수료생들은 또한 국가공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의 기회도 주어진다.

참고로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전국 64개소)의 도시농업 전문 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할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농업은 도심 속 녹지 확장이라는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건강, 환경,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의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도시농업 현장 전문가로서 첫 발을 내딛은 1기 수료생들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농업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나주시청 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339-74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열대 거세미나방 예찰 강화

화순군이 검역 병해충 '열대 거세미나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에 나섰다.

아메리카 원산인 돌발 해충으로 기류를 타고 장거리 이동하는 열대 거세미나방이 지난 6월 제주도에서 발견된 이후, 보성, 해남, 영암, 강진 등 남부 지역에서도 발견돼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열대 거세미나방은 8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식물에 피해를 준다. 특히, 옥수수수와 벼 등 화분과 식물에 피해를 준다. 알컷 한 마리가 최대 1000개까지 알을 낳고 어린벌레는 잎과 줄기를 먹고 떼를 지어 이동하며 작물 수확량

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

열대 거세미나방 어린벌레의 뒷날개는 흰색이며 여연 테두리에는 짙은 띠가 있다. 어린벌레의 머리에 뒤집힌 Y-모양의 얇은 줄무늬가 있고, 몸은 마디마다 4개의 볼록한 점무늬가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조기 예찰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옥수수 재배 포장에 페로몬 트랩을 설치해 발생 상황을 매일 조사하고 있다. 도입면 등 옥수수를 주로 재배하고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하며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정남진도서관, 여름방학 문화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대상 오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



정남진도서관은 정남진도서관에서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여름방학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프로그램은 관내 어린이들이 여름방학을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역사를 바로 아는 '역사야 놀자-역사보드게임', 꽃 그림책을 보며 진행되는 '꽃과 함께 하는 이야기 책놀이' 등이 진행된다.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가족영화상영-보헤미안랩소디' 등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주 출판단지 지원으로 '출판도시 찾아가는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편집과 디자인 책을 제작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각 페이지에는 자신의 글을 채워 나만의 책을 만드는 체험활동을 갖는다.

상반기 '책놀이지도사'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래놀이지도사', '바른몸짓-건강무예' 과정을 편성해 다양한 배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지난 3월 전수를 시작한 결과과정이 모집 완료되는 등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